

유통·화장품 한 주 파악잡기



Analyst 안지영 6915-5675 [jyahn@ibks.com]

주간 유통/화장품 뉴스

백화점 '신규출점 제로'... 아웃렛으로 돌파구 연다(동아닷컴 2018.08.13)

2016년 신세계 동대구점 개장 이후 신규 매장을 단 한 곳도 내지 않은 백화점업체가 아웃렛 매장을 대폭 늘리고 있음. 백화점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업계의 주력사업이 백화점에서 아웃렛으로 옮겨가는 분위기. 백화점업체가 앞다퉈 아웃렛 부문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백화점이 이미 포화 상태에 놓인 데다 백화점으로 향하는 소비자가 줄고 있기 때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 백화점 수는 113개다. 매출 증가폭은 거의 '제자리걸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백화점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성장하는 데 그침. 반면 아웃렛 매출은 상승곡선을 그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17 유통산업백서'에 따르면 국내 아웃렛 시장 규모는 2011년 7조9000억 원에서 2015년 13조 원으로 급증했으며 2020년 1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온라인 큰손, 백화점으로 몰린다' 신세계百貨, SSG닷컴 VIP 고객 혜택 확대(뉴데일리경제 2018.08.13)

13일 신세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SSG닷컴 온라인 고객에게 백화점 VIP 혜택을 제공해 백화점 매장으로 유입, 신규 고객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 직전 3개월간 SSG닷컴 15회 이상 방문, 7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이 대상. 선정된 고객들은 백화점 상품 5% 상시 할인, 무료주차 3시간, 멤버스바 음료 제공, 문화센터 강좌 할인 등 백화점 VIP(레드 등급)에 준하는 혜택을 받게 됨. 온라인 VIP들이 백화점 매장에서는 명품, 잡화, 해외패션 등 상대적으로 고가의 상품을 집중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남. 고야드, 루이비통, 몽클레르, 생로랑, 조말론 등 명품 브랜드에 지갑을 열었음. 온라인 쇼핑에서 충족되는 않는 부분을 오프라인에서 해소한 것으로 풀이됨.

위기의 대형마트, 성장 둔화 계속된다(시사저널 2018.08.12)

분기에도 대형마트 실적 부진이 계속됐다. 영업시간도 한 시간 줄어든데다, 정부 규제에 의한 출점 둔화까지 겹치면서 영업익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 증권업계에서는 하반기와 내년에도 실적 개선이 더딜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국내 대형마트 1위 이마트는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 8.5% 오른 3조9894억원을 기록했다고 지난 9일 공시.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8.0% 감소한 533억원을 기록. 창고형 할인점인 트레이더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크게 늘었지만, 할인점 부문이 실적을 끌어내림. 할인점 2분기 매출은 2조698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줄었다. 영업이익은 4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4.2%나 감소함. 올해 상반기 전체로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0.9%, 24.1% 감소한 5조6041억원, 1880억원으로 집계. 롯데마트의 경우에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음. 롯데쇼핑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349억원을 기록했다고 10일 공시. 백화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과 비교해 30% 오른 2000억원을 기록했지만, 롯데마트에서의 부진이 심화됨. 롯데마트 2분기 매출액은 1조58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고, 영업적자 780억원을 기록. 상반기 전체로 따지면 롯데마트는 1220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것

최저임금 인상에..편의점 신규 출점 '뚝'(아주경제 2018.08.12)

편의점 업계의 상반기 성적표가 실망스럽게 나타남.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환경이 벅장 끝에 물리자 점포확대와 이익이 모두 주춤. 올 여름 월드컵과 기록적 폭염 등 다양한 호재가 있었음에도 최저임금 후폭풍이 결과로 나타남. 지난해 하반기 평균 14%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올해 1분기는 12%대로 떨어짐. 이어 2분기의 시작점인 올해 4월부터는 한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이며 성장이 크게 둔화됨. 6월 편의점업계의 점포 증가율은 7.9%로 전년과 비교해보면 2배 가량 급감. 업체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BGF리테일의 편의점 CU는 지난 7월 점포의 증가에서 폐점을 뺀 순증이 49개에 그침.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 수준. 지난해와 비교해보도 순증의 감소는 확연. CU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1092개의 점포가 늘었지만 올해는 443개 증가 수준. GS리테일의 편의점 GS25도 순증 규모가 크게 감소함. 7월 편의점 순증수는 72개로 CU보다 많았지만 지난해 7월 135개와 비교해보면 절반 수준. 특히 1월부터 7월까지 전체 순증수도 지난해 1183개에 비해 올해는 415개로 60%이상 감소. 이런 현상은 전체 편의점 업계에서도 동일. 올해 상반기 국내 5대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의 신규 출점을 살펴보면 총 2674개점으로 전년동기(3516개) 대비 24% 감소.

홈쇼핑업계로 불붙은 '새벽 배송' 전쟁(한국금융 2018.08.10)

홈쇼핑업계에서도 '새벽 배송' 전쟁이 시작됐다. 대형마트·이커머스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신선식품 오전 배송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차별화된 단독 상품으로 승부하겠다는 전략.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현대H몰은 이날부터 식품 코너인 '싱싱 냉동마트'에서 새벽배송 서비스를 시작함. 홈쇼핑업계에서 새벽 배송을 론칭한 건 이번이 처음. 고객이 전날 오후 3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집 앞으로 배송됨. 새벽배송 대상 품목은 동원·오투기·대상 등 10여개 식품업체 냉동조리식품과 가정간편식(HMR), 유제품 등 약 400여개. 2만 원 이상 구매 시 무료로 배송. 이를 위해 현대홈쇼핑은 새벽 배송 전문업체 '하루로지스'와 시스템을 구축함.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서울 전 지역에서 시범운영한 뒤 향후 경기와 인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함.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설치 법안 또 발의...면세점업계 '시큰둥' 왜? (뉴스 2018.08.10)

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 법안이 또다시 발의됐다. 이번이 7번째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 가장 반대해 왔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들이 최근 '오너가 갑질' 논란 등에 휩싸이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 정작 면세점 업체들도 입국장 면세점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 분위기. 오히려 면세점보다는 출국할 때 샀던 면세품을 찾을 수 있는 '입국장 인도장'이면 충분하다는 반응. 정작 면세사업자들도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 경쟁이 심화되고 인천공항공사에 지급해야 할 임대료 부담만 늘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

업종코멘트(8/13-8/17)

유통: 유통업종의 2분기 실적이 마무리됨. 홈쇼핑과 롯데하이마트의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대비 3~10%를 상회하며 업종 가전수요 모멘텀을 가시화함. 반면에 대형마트와 편의점은 기후변화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와 최저임금 이슈로 인해 신선식품 부문의 매출감소, 인건비 증가 영향으로 업종 평균적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함.

화장품: 금주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코리의 2분기 실적 발표 예상. 내수 부분의 수출 증가와 중국 회복을 전망. M&A법인들의 회계반영으로 외형 증가는 긍정적인 반면 수익성 하락은 불가피해 보임.

국내외 업종 지수 및 Peer 종목군 주가 상승/하락률

지수	증가(p)	주간 절대 등락률(%)	증감률	1W	2W	1M	증감률	1W	2W	1M
KOSPI	2,282.79	-0.21%	롯데쇼핑	-2.62	0.99	-4.66	GS리테일	10.37	11.06	-11.10
KOSDAQ	784.81	-0.51%	현대백화점	-0.50	2.15	-3.85	코웨이	0.65	-0.11	2.55
유통업	435.30	0.64%	신세계	-9.36	-7.19	-9.09	아모레퍼시픽	-3.99	0.19	-10.03
주요 환율	현재가	등락률(%)	이마트	-0.68	0.00	-11.02	LG생활건강	-5.50	-4.68	-6.60
KRW/USD	1,117.90	-0.42	롯데하이마트	1.94	-2.35	0.25	코스맥스	-3.41	1.43	-4.71
KRW/JPY	1,005.62	0.00	CJ오쇼핑	6.76	6.36	-5.64	한국콜마	-2.26	2.82	-11.62
KRW/CNY	163.78	-0.40	현대홈쇼핑	5.83	7.27	3.96	토니모리	-2.70	0.00	-4.00
			엔에스쇼핑	1.62	0.00	-3.46	잇츠스킨	-3.42	-4.29	-7.79
			GS홈쇼핑	0.10	4.30	4.79	클리오	-6.54	-9.81	-33.33
			BGF리테일	4.26	4.57	-4.19	코스메카코리아	1.15	13.42	-11.48

증감률	1W	2W	1M	증감률	1W	2W	1M	증감률	1W	2W	1M
시세이도	-4.4	-8.7	-6.9	노드스트롤	2.6	0.6	3.3	텐센트	-0.7	1.0	2.1
로레알	-0.5	2.4	1.5	막스&스펜서	0.5	-5.5	-7.3	알리바바	2.1	2.9	4.0
에이본프로덕츠	0.6	18.4	18.4	다카시마야	3.9	1.1	0.9	JD닷컴	1.4	3.1	5.5
상해자화	-2.8	-11.6	-10.6	이온 물	3.5	-1.5	-1.6	VIP샵	0.5	-0.3	8.8
크리스찬디올	2.6	4.0	5.4	세븐&홀딩스	0.9	-0.4	0.2	스타트투데이	4.7	-1.8	-5.3
P&G	-1.1	1.0	2.0	아마존	-3.0	-4.9	1.7	이베이	-2.0	-6.5	-8.0
고세	-1.5	-5.1	-5.7	월마트	0.5	-2.2	0.5	메르카도리브레	-0.4	-0.5	-6.7
에스티로더	-2.1	-3.4	-8.6	테스코	4.1	4.5	8.9	라쿠텐	-2.7	-7.3	-14.6
LVMH	2.6	0.6	3.3	타겟	-0.7	1.0	2.1				
ULTA	0.5	-5.5	-7.3	까르푸	2.1	2.9	4.0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글로벌 대표 소비재의 투자지표

화장품 글로벌 피어	시세이도	로레알	에이본 프로덕츠	상하이 자화	크리스찬 디올	P&G	고세	에스티로더	LVMH	ULTA
현재가(현지통화)	7,750.00	211.00	1.80	34.79	379.70	81.40	21,200.00	132.17	303.00	236.15
시가총액(백만USD)	27,930	135,526	796	3,409	78,600	202,524	11,574	48,512	175,509	14,211
매출액 (백만USD)	2016 7,840 2017 8,964 2018 9,817 2019 10,687	27,578 29,400 30,948 32,621	5,718 5,716 5,667 5,660	890 953 1,156 1,398	43,721 49,330 54,100 57,769	65,299 65,058 66,858 67,283	2,029 2,468 2,809 3,014	11,262 11,824 13,646 14,564	41,617 48,167 54,212 58,169	3,924 4,855 5,885 6,698
영업이익 (백만USD)	2016 339 2017 717 2018 1,078 2019 1,294	4,342 5,079 5,618 6,014	322 273 360 361	37 54 104 138	7,874 9,263 N/A N/A	13,441 13,955 14,568 14,764	289 362 446 518	1,610 1,692 2,272 2,511	7,638 9,169 11,427 12,218	506 655 785 863
순이익 (백만USD)	2016 296 2017 203 2018 673 2019 832	3,438 4,046 4,600 4,922	-108 22 45 89	30 58 83 109	1,952 2,531 2,907 3,209	10,508 15,326 11,132 11,437	156 200 267 329	1,115 1,249 1,670 1,857	4,406 5,794 7,369 7,988	320 410 555 660
PER (배)	2016 36.8 2017 95.6 2018 41.1 2019 33.5	31.5 27.1 30.0 28.0	68.5 37.1 20.2 9.7	90.4 63.6 41.7 32.1	20.3 24.4 27.5 24.9	22.5 22.4 19.5 18.4	33.5 26.5 41.6 32.7	28.8 25.9 29.6 26.4	22.9 24.0 24.2 22.3	36.1 41.0 26.1 21.6
ROE (%)	2016 8.2 2017 5.6 2018 17.2 2019 18.4	12.9 14.5 15.1 15.1	N/A N/A N/A N/A	3.7 7.3 9.6 11.5	16.0 18.2 18.5 18.4	17.5 27.8 19.6 20.0	13.0 13.9 16.9 19.1	30.9 31.4 35.4 41.1	15.7 18.6 20.3 19.7	23.8 27.4 33.4 34.8

주: 회계 결산연도 기준. ULTA, 고세는 2019년만 추정치, 나머지는 2018년부터 추정치. 자료: Bloomberg

글로벌 대표 소비재의 투자지표

유통 글로벌 피어	노드 스트롬	맥스&스펜서	다카시 마야	이온 몰	세븐&홀딩스	아마존	월마트	테스코	타겟
현재가(현지통화)	52.55	305.90	926.00	1,879.00	4,526.00	1,898.52	89.01	265.00	82.62
시가총액(백만USD)	8,796	6,358	2,966	3,851	36,148	925,986	262,655	33,187	44,048
매출액 2016	14,437	15,914	7,177	1,904	40,549	135,987	482,130	81,684	73,785
(백만USD) 2017	14,757	13,882	7,962	2,496	42,978	177,866	485,873	74,106	69,495
2018	15,478	14,456	7,960	2,587	43,162	234,941	500,343	75,382	71,879
2019	15,741	13,714	8,408	2,814	59,833	286,536	514,588	83,657	73,429
영업이익 2016	1,101	881	273	364	2,920	4,186	24,105	1,624	5,530
(백만USD) 2017	805	331	314	416	3,372	4,106	22,764	1,348	4,969
2018	926	889	317	442	3,516	11,030	20,437	2,409	4,312
2019	922	817	280	479	3,748	17,217	21,690	2,798	4,083
순이익 2016	600	613	198	204	1,334	2,371	14,694	209	3,363
(백만USD) 2017	354	153	193	264	895	3,033	13,643	-53	2,737
2018	437	610	212	274	1,626	12,676	9,862	1,581	2,934
2019	588	547	182	293	1,924	17,917	13,836	1,792	2,796
PER 2016	14.6	16.4	13.3	14.8	24.7	152.7	15.1	56.8	15.4
(배) 2017	13.6	46.8	16.9	13.8	40.2	256.6	15.4	234.6	12.7
2018	16.9	11.0	16.1	16.7	21.8	74.2	24.1	16.9	15.5
2019	15.1	11.6	16.0	13.1	18.7	53.0	18.8	18.5	15.6
ROE 2016	36.2	12.2	6.0	7.4	6.9	14.5	18.1	1.8	25.0
(%) 2017	40.7	3.5	5.1	8.3	4.1	12.9	17.2	-0.5	22.9
2018	47.3	13.1	5.6	8.4	7.6	21.7	12.7	14.3	25.9
2019	51.2	13.4	4.6	8.5	8.6	23.5	17.6	10.9	24.1

주: 회계 결산연도 기준, 아마존과 맥스&스펜서는 2018년, 2019년 모두 추정치, 나머지는 2019년만 추정치. 자료: Bloomberg

유통 글로벌 피어	가르푸	텐센트	알리바바	JD닷컴	VIP샵	스타트 투데이	이베이	메르카도 리브레	라쿠텐
현재가(현지통화)	15.54	366.20	177.19	36.02	9.13	3,695.00	34.15	384.39	796.90
시가총액(백만USD)	14,061	444,215	459,309	51,664	6,017	10,375	33,793	16,974	10,300
매출액	2016	87,189	22,880	15,910	38,895	8,522	454	8,979	844
(백만USD)	2017	92,207	35,223	23,531	53,678	10,802	706	9,567	1,398
	2018	90,905	49,175	39,158	69,169	13,191	918	10,819	1,492
	2019	92,785	65,858	59,089	87,030	16,185	1,233	11,654	2,075
영업이익	2016	2,190	7,971	4,578	-188	408	148	2,325	181
(백만USD)	2017	786	12,540	7,145	-124	399	243	2,265	56
	2018	2,155	16,246	11,116	55	486	300	2,840	-9
	2019	2,606	20,491	12,949	755	622	349	3,034	112
순이익	2016	826	6,188	11,241	-573	307	100	7,266	136
(백만USD)	2017	-600	10,594	6,493	-23	289	158	-1,016	14
	2018	884	12,258	13,267	906	459	207	2,291	11
	2019	1,054	16,223	15,361	1,661	582	247	2,389	81
PER	2016	21.6	38.7	55.3	N/A	22.2	40.4	18.1	47.5
(배)	2017	N/A	44.5	47.1	N/A	23.8	45.1	30.4	197.1
	2018	15.9	35.9	36.3	61.5	13.9	51.4	14.9	1,581.9
	2019	13.5	27.2	29.6	39.8	10.6	42.1	13.4	208.6
ROE	2016	7.4	27.9	39.4	-11.8	43.9	55.5	84.9	35.5
(%)	2017	-5.2	33.2	17.6	-0.4	19.5	72.7	-10.9	3.7
	2018	6.8	27.9	19.5	2.6	15.9	63.8	29.8	-9.3
	2019	8.1	28.1	17.6	6.3	18.2	65.3	32.2	19.1

주: 회계 결산연도 기준, 스타트투데이는 2019년만 추정치, 나머지는 2018년, 2019년 수치가 추정치, 자료: Bloomberg